

정도전서 소록도 할매 천사까지... 전라도 역사 빛낸 인물 조명

전라도 1000년 인물 열전

(1) 프롤로그

다산 정약용·첫 의병 유팽로·김대중 전 대통령 등

義鄉·藝鄉·文鄉의 고장 전라도 인물 지면에 소개

전라도를 규정하는 키워드를 세가지로 요약한다면 아마도 의향(義鄉)·예향(藝鄉)·문향(文鄉) 일 것이다. '의·예·문'의 고장으로 지칭하는데는 전라도 인물들이 역사속에서 보여준 의롭고 다재다능한 족적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이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고 말한 것처럼 전라도 사람들은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섰다. 몽골에 항거한 진도 삼별초,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의병, 동학농민혁명과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전라도라는 지명이 처음 등장한 고려 현종이후 1000년 동안만 보더라도 역사의 전환기마다 의로운 전라도인들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곡성의 유팽로는 전라도에서 가장 먼저 의병을 일으켰다. 고향에서 500명을 이끌고 이종사촌인 양대박과 함께 고경명을 만나 6000여명의 호남연합의병을 결성하고 금산전투에서 순절할때까지 왜군에 짓밟히는 조국을 구하는데 앞장섰다. 녹두장관 전봉준은 피탈로 고통받던 농민들의 뜻을 모아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고 경술국치로 일본에 국권을 상실하자 매천 황현은 절명시를 짓고 순국함으로써 항일정신의 불꽃을 지켰다.

일제시대 항쟁의 김철 선생은 김구 선생과 함께 의용단을 결성해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봉기를 주도했다. 보성의 나철 선생은 좌원급제로 공직에 나섰지만 합병된 일본에서 녹을 먹을수 없다하여 그만두고 대중교를 장시해 단군의 정신을 기반으로 독립운동을 했다.

학문과 예술로 문향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인물들도 허다하다. 무안의 초의 선생은 우리나라 최초의 차 관련 서적인 '동다송'을 지어 한국의 다성(茶聖)으로 불리고 추사 김정희와 다산 정약용과의 교우를 통해 호남 예술의 토양을 더욱 풍성하게 했다. 소치 허련은 초의선사의 소개로 김정희의 문하생이 된후 5대에 걸쳐 이어지는 진도 남종화의 태두가 됐다.

해남 운선도에서 절정에 달한 시조문학은 담양의 가사문학으로 발전했다. 양산보는 소재원을 지어 송순, 김인후와 함께 자연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는 법을 배웠

다. 송순과 정극인의 가사문학은 담양의 누정을 바탕으로 정월문화를 꽃피웠고 정철의 성산별곡을 낳았다.

이항과 사단칠정 논쟁을 벌인 기대승의 정신은 박수량의 정백리 정신으로 이어졌다. 조선후기 실학자 위백규는 장흥에 묻혀 지내면서도 향촌사회 개선론을 제기해 일찌기 지방자치의 모델을 제시했다.

전라도 출신은 아니지만 유배지로 전라도와 인연을 맺어 호남은 물론 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도 많다. 삼봉 정도전은 유배 온 나주에서 민초들과 생활하면서 백성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민본사상을 키워 조선의 설계자가 될 수 있었다. 조선시대 개혁가 조광조는 기묘사화에 연루돼 화순에 유배온지 한달 만에 사약을 받아 죽음을 맞았지만 그의 개혁정신은 호남학자들의 DNA로 남을 정도로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다산 정약용은 18년 동안 강진에 머물면서 실학사상을 집대성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는 목민심서 등 500여권에 달하는 책을 썼는데 강진에서의 생활이 다작의 토양이 됐다.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결출한 인물을 들라고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는 사람이 많다. 신안 하의도의 섬 소년인 그는 난속에서도 대통령의 꿈을 이룰수 있었던 것은 소외된 전라도의 한이 그를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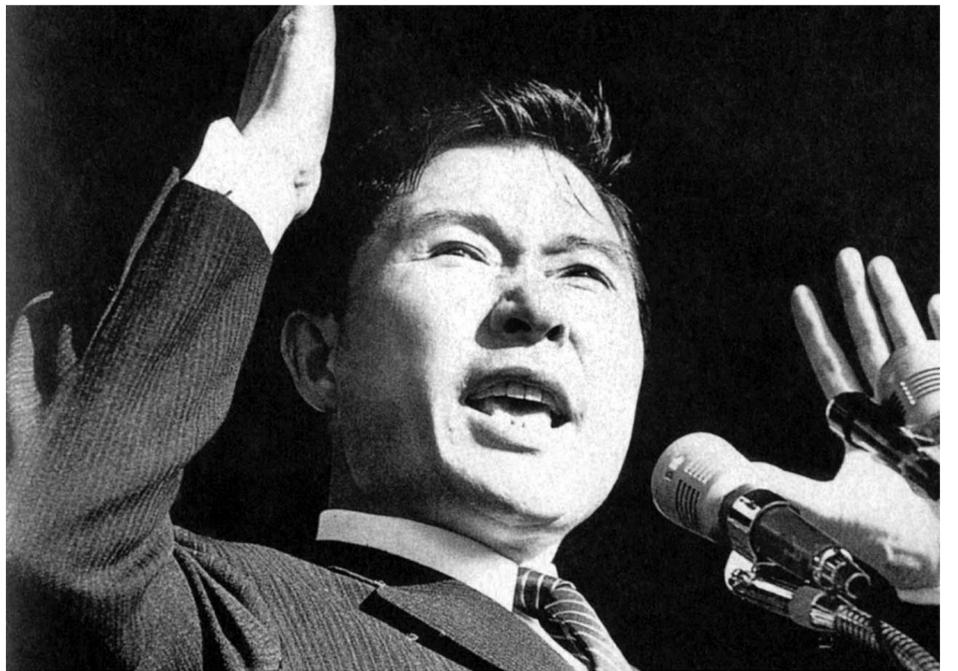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는 오스트리아 태생이지만 전라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녀들은 정부조차 관심을 갖지 않을때인 1960년대부터 40여년을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는데 평생을 바쳤다. 요즘 정부가 나서 노벨상후보로 추천하는 이유도 그녀들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아 광주일보보는 전라도를 빛낸 역사적인 인물들을 새롭게 조명한다. 전라도 출신은 물론이거니와 전라도와 인연을 맺은 인물 가운데 의미있는 족적을 남긴 사람들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인물 발굴 차원에서 가능하면 덜 알려진 인물을 중심으로 전남지역 시군별로 1명씩을 선정해 게재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위부터 정도전, 정약용, 나철.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황현, 기대승, 조광조, 마리안느·마가렛 수녀, 김대중 전 대통령.



평택시 토지분양 (오픈)

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

- 1)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2)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3)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4)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5)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

010-6670-9800 010-7384-7800

영광주택 매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직거래 010-6670-9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토지 123평 건물 198평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5억6천

2) 북구 우산동 (3층 상가주택) 토지 66평 건물 172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3)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105평 건물 1,200평 월세 2천500만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17억5천

4) 강진군 칠랑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3억6천

5)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6억3천

6) 군산시 나운동 (사우나) 토지 132평 건물 334평 사우나 운영시 월수익 2천이상 예상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

7) 동구 불로동 (8층상가빌딩) 토지 619평 건물 2116평 구시청 사거리 1분 (히딩크호텔) 감정가 88억 - 최저가 62억

8) 남구 노대동 (주택) 토지 74평 건물 31평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

9) 화순 도곡 (숙박시설) 토지 617평 건물 856평 도곡스파랜드 1분 감정가 26억5천 - 최저가 9억5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토지 62평 건물 (전용) 99평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2억9천

11) 장성 북이면 (요양병원) 토지 33,659평 건물 1,505평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

12) 북구신안동 (모텔) 토지 141평 건물 656평 광주역 2분 코너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경매교육

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

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

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

※공동 사무실 쓰실분

-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3. 공동사무실 쓰실분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

010-6670-9800

010-6670-9800 010-7384-7800